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rows for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schedules.

최진실 "남편한테 사랑받는 역 하고 싶어요"

MBC 드라마 '나쁜여자...서 세영 역...새해 첫날 방송

"남편한테 사랑받는 역 할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가을 KBS 2TV 드라마 '장미빛 인생'에서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는 맹순 역으로 시청자의 눈물을 속 뺨 땀린 최진실이 MBC 새 일일연속극 '나쁜여자 착한여자'의 주연 세영 역으로 돌아온다. 이번에도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는 복 없는 주부 역할. 두 드라마에서 연이어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빼앗긴 최진실은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나쁜여자 착한여자' 제작발표회에서 극중 남편 건우(이재용)를 차지하는 서경 역의 선현에게 '질사'의 눈길을 보였다.

이 되지만 최진실은 대본을 읽자마자 이 드라마에 꼭 출연하고 싶은 욕심이 났다고 털어놨다. 데뷔한 지 20년이 다 되지만 최진실이 일일극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0회 분량으로 전개되는 '나쁜여자 착한여자'는 베테랑 최진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다. "워낙 분량이 많고 빨리 촬영해야 하다 보니 제가 제대로 연기했는지 의문이 들어도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일일드라마는 원래 이렇게 찍는 거'라고 이재용 씨에게 묻기도 했죠(웃음)." 일일연속극을 마라톤에 비한다면 최진실은 시청률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힘이 빠질 것 같다는 걱정도 했다. 드라마가 방송되는 내년이면 39세가 되는 그는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스스로를 '원로'라 칭하기도 했지만 극 중 세영의 나이인 31세 못지않은 젊음을 과시했다. "초등학교 때 앞 친구가 잘 달리는 모습을 보면 멀리잖아요. 고현정, 채시라 씨 같은 연기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잘 뛰어야 하는데' 싶죠. 하지만 막상 '땀' 소리가 나고 출발하면 마음이 편하죠. 30대로서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나 경험을 잘 표현해내고 싶습니다." 남편이 6년 동안 외도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부의 이야기를 그리는 '나쁜여자 착한여자'는 새해 첫날 처음 방송되며 최진실, 이재용, 선현아, 전노민이 출연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열린 음악회'

김용임·박진도 등 출연...오늘 오후 6시30분 광주 시민회관

(사)한국연예협회 광주지회(회장 유방희)와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의 작은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늘 오후 6시 30분 광주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함께 جو 씨와 원재로 씨가 사회를 맡아 즐거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

이다. 다양한 인기 스타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코미디언 한 무씨가 원재소를 선사하는 것을 비롯해 민요가수 김부자, '사랑의 밭줄'의 가수 김용임(사진), '특별한 여자'의 박진도, 성악가 김선희 씨가 출연한다.



'모부'가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입장권 무료. 문의 062-352-1080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with details on discounts and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20일

Large table listing TV channels (YTN, MBN, KTV,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the day.

PBC 광주광역시방송 (PBC Gwangju Metropolitan City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

TBN 교보방송 (TBN Gyo-bo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

BBS 불교방송 (BBS Buddhist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